

‘비빔, 세계를 잇다’ 전주비빔밥축제

24~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서 음식·예술 문화 행사·체험 등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 오감만족 축제 개최

전주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국가대표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가 올해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5 전주비빔밥축제’가 전주의 맛과 비빔의 미학을 담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비빔, 세계를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21개의 비빔메뉴가 선보여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주의 풍성한 맛을 알리게 된다.

또한 음식과 예술 문화 행사 및 체험 등이 함께 비빔과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예술 오감만족 축제로 준비된다.

대표적으로 전주비빔밥축제의 꽃인 ‘대형비빔퍼포먼스’ 행사에서는 하계 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21개 자생단체와 전주를 식업소가 참여하는 ‘데트로비빔거리’ △비빔밥 요리사와 재료들의 ‘비



‘2025 전주비빔밥축제’ 포스터

빔밥퍼레이드’ △미니올림픽 체험인 ‘도전미니올림픽’이 행사장을 채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는 △전주비빔밥 재료들을 캐릭터

화한 ‘비빔프렌즈 팝업스토어’ △한 그릇에 담긴 전주비빔밥의 매력을 오감으로 즐기는 ‘비빔 문화공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홍보존’ △세계의 비빔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세계비빔존’ 등 특별관도 운영된다.

동시에 축제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며 버스킹과 마당극, 보물찾기, 스탬프투어 등 비빔 공연과 야간 공연, 각종 이벤트의 다양한 연계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비빔밥축제의 첫날 야간 시간대에는 ‘전주페스타 2025’의 축하무대인 ‘함께가을’이 함께 진행된다.

이날 축하무대에서는 올림픽 유치 기원을 담은 홀로그램쇼·멀티미디어쇼와 인기가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이어 오는 25일과 26일에는 지역예술인·어린이공연과 야간 투게터쇼가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체험존에서는 팝업스토어와 과학놀이터, 전통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이와 관련, 전주비빔밥축제는 한국 식문화의 정수가 담긴 비빔밥을 주제로 올해 19회를 맞이했다.

전주비빔밥은 사골육수로 지은 밥 위에 콩나물과 산채나물, 육회와 오방색 고명을 올려낸 정성의 음식이다. 이는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 색과 맛, 조화와 균형을 중시한 철학적 음식으로 불려왔다.

전주비빔밥은 CNN이 ‘세계 최고의 쌀 요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조선 왕조의 역사와 전주의 문화적 유산이 녹아 있는 요리’로 소개하기도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올해 전주비빔밥축제를 전주비빔밥 뿐만 아니라 맛의 고장 전주의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한국 전통의 맛과 멋, 흥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며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대표 음식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가상융합 산업 글로벌 경쟁력 입증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지원기업 편입, 태국 국립과학관과 ‘디지털시티 VR 상설전시관’ 구축계약 체결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지원기업인 ㈜편잇이 태국 국립과학관(NSM)과 ‘디지털시티 VR 상설전시관’ 구축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XR·AI 선도 기업인 ㈜편잇은 태국 국방 시장 진출에 이어 국립과학관 전시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지역 가상융합산업 육성 정책이 해외 시장에 서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실제로 ㈜편잇의 연이은 해외 성과는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성장의 결과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이 업체가 지난 2023년 ‘XR·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XR 군사훈련 시스템을 개발했고, 태국 국방 과학연구소(DTI)에 약 8만 달러(한화 약 1억 원) 규모로 수출하며 현지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2025년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시스템에 AI 기반 교관 개입 기능과 실시간 훈련 평가 시스템을 결합하는 고도화 과제를 수행하며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진흥원은 이러한 기술력과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 현지 네트워크가 결합해 이번 태국 국립과학관 VR전시관 구축 프로젝트 수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번 성과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시행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운영된 ‘가상융합지원센터’의 최적지가 전주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진흥원은 내다보고 있다.

최인형 ㈜편잇 대표는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의 꾸준하고 체계적인 지원 덕분에 기술 개발과 콘텐츠 고도화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K-가상융합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청년 지원 정책 ‘한눈에’

전주시, ‘청춘응원패키지’ 설명회 가져

전주시가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이거나 놓치기 쉬운 구직과 금융, 복지, 주거 등 청년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홍보했다.

시는 22일 (목)휴먼제이앤씨에서 전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주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청년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청춘응원패키지’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청년 지원사업의 내용과 참여 방법, 혜택 등을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15개 전주시 청년 지원사업을 ‘청춘응원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묶어, 구직과 주거·금융, 문화·복지 등 3대 분야로 구성해 청년들이 한눈에 정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은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교통비 지원 △청년면접점장 무료대여 △청년활력수당 등이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을 위한 △청년민원주택 ‘청춘★별

채’ △청년월세 한시 지원 △청년 함께 두배작금,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 △대학생 전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도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시는 이날 수렴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행사 및 대학 내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청년 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AI추진위원회 출범… AX미래전략 포럼 개최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주시 AI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오는 29일 진흥원 대강당에서 ‘AI혁신의 중심, 전주가 답이다’를 주제로 한 전주 AX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과 산업계·학계·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서는 전주시 AI 산업의 추진 방향과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전주시 인공지능(AI) 추진위원회가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전주시 AI 정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인공지능과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2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 임



기는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AI 추진 방향과 AX 기술 동향 △피지컬AI 산업과 전망△전주 신성장산업 견인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 전환에 관심 있는 기업과 대학생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누리집 또는 진흥원 누리집에서 행사 개요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완주군·전주시 다문화 이주여성 교류의 장 열려

전주시와 완주군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한국 여성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2일 진안군 일원에서 전주시와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여성과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황민정)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 하는 ‘맘프렌드(Mom-Friend) 다문화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진안군 용담호 인근에서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환경 캠페인 활동으로 첫 소통을 시작했다.

이어 ‘진안고원 치유숲’에서는 숲길을 걷는 트레킹과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서로 간의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권희성 기자

제36회 백제가요 정읍시 문화제

2025. 10. 25.(토) ~ 10. 26.(일) | 2일간 정읍시 문화공원 일원

25일 (토) 09:00 채수예 10:10 여인예	25일 (토) 17:30 개막식 설운도, 김다현	26일 (일) 18:00 정읍시가요제 송가인, 김미주, 유소라(2024 수상자)	25일 (토) ~ 26일 (일) 10:00~20:00 제18회 평생학습축제
--	--	--	--

주최·주관 정읍시 (사)정읍시문화제 제전위원회 문의 (사)정읍시문화제 제전위원회 T.063)532-8880

2025년도 정읍시 정읍시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